

종단 홈페이지 관리 부실

자료 업데이트 월1~2회, 오히려 이미지 훼손

‘열린 종단’을 지향하며 종단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불교 종단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관리부실로 종단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총화종 등 1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자료와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3곳에 불과하다.

태고종과 관음종 총지종 총화종 등의 홈페이지는 자료 또는 소식을

게시판엔 음란사이트 홍보메일 그대로 조계종·천태종·진각종은 알찬 운영

업데이트 하는 기간이 월 1~2회 정도에 불과해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심지어 게시판에는 음란성 홍보글이 다수 올라 있어, 이용자들이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김모씨(33)는 “집 주변 사찰에 나가기 위해 소속 종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음란성 사이트 홍보문

이 방지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갈 마음이 사라졌다”며 “홈페이지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종단 홍보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통된 홈페이지가 오히려 종단은 물론 소속 사찰의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전담 관리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용자들의 접속이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는 종단 소식과 불교계 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모아 이용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천태종과 진각종도 종단 소식과 불교계 소식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들 종단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담하는 전산실을 따로 두고 전문인

력을 배치하고 있다. 세세한 종단 소식까지도 공개하는 ‘열린 종단’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공통점이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두 종단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이런 종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불교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등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처럼 홈페이지 관리에 따라 종단들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각 종단들의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병주 조계종 전산과장은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투자, 그리고 인터넷 활용 마인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ews.com

동방대학원대학 설립준비 막바지

태고종, 총무원 청사 4월부터 교사로 개조

태고종은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방대학원대학을 개교한다고 4일 발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부터 서울 성북동 현 총무원 청사를 교사(校舍)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현 총무원 청사(시가 30억 상당)와 서울 회기동 지족암의 종교유지(506㎡)와 건물(145.48㎡)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며, 12일 열리는 임시중앙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을 예정이다.

동방대학원대학은 불교문화학과, 서화예술학과, 민속문화학과 등 3개 과와 불교, 법패, 불교미술 등 10개

세부전공으로 2년의 석사과정으로 운영된다. 종립 동방불교대학은 동방대학원대학의 부속기관으로 편입, 정규 불교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태고종은 운산스님과 원봉스님, 해공스님이 학교법인 이사, 부원장 자월스님이 감사로 취임했으며, 운산스님을 법인 이사장, 김서봉 이사장을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도록 합의한 상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동방대학원대학을 불교학 연구정립과 민족 고유의 불교문화예술을 계승하는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아 찾아드립니다” 천태종, 사무실 열어
천태종 사 회복지재단은 1일 서울 관문사 2층 복지재단내에 미아찾아주기운동본부 사무실을 개소했다. 불교계 처음으로 미아찾아주기 운동에 나선 천태종 복지재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미아찾아주기운동본부는 현재 장기미아 27명의 신상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사찰에 배부, 신고를 받고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이 미아찾아주기 운동을 돌리고 있다. 미아찾아주기 전화 (02)579-5518

밀교·진각 논문공모 진각종, 내달 15일까지

진각종 교육원은 제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요강을 발표하고 4월 15일까지 논문제출서를 모집한다. 진각논문대상은 불교학과 밀교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연구 장려사업이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불교일반, 밀교, 진각종 교학과 관련된 논문제출서와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제출서는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6일 분야별 당선자를 선정, 발표하게 되며 당선자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된 논문제출서에 따라 집필된 논문은 11월 발표회를 갖게 되며 ‘회당학보’에도 게재된다. (02)913-0133-4

인사

- ▲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겸 불교대학장 이법산 △불교문화연구원장(겸직) 서윤길 △박물관장 장종식 △보건소장 이명중 △실협농장장 김용욱 △연습관리소장 윤화영 △역경원장 김성구 △비구니수행원장 강문선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동대신문사 부주간 장시기 △사회교육원장 과준규 △언어연구교육원장 봉일원 △산학기술협력센터소장 겸 창업지원단장 백수현 △학상상담센터소장 권동희 △정보관리실장 이호웅
- ▲ 여학생실장 손재현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장 고진호 △연구처 연구개발팀장 안형택 △연구처 국제교류실장 황훈성 △대학원 교학부장 박윤희 △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학부장 최병석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박경준 △행정대학원 교학부장 이성량 △경영대학원 교학부장 정창근 △산업기술환경대학원 교학부장 박상진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 과노성
- ▲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김길웅 △언어연구교육원장 신승윤 △금강생활관장 오영석 △동대

게시판

- 신문사 부주간 구분철 △교육방송국장 김신재 △사회문화교육원장 김용택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 이연환 △학생상담센터소장 최원상 △정보관리실장 조태경 △여학생실장 이인자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장 장도규 △교무처 연구교류실장 김홍식
- ▲ 동국대 의료원 △동국의료원장(겸직) 홍기삼
- ▲ 영주장애인복지관은 언어치료사와 주
- 간보호소담당자 1명씩을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3일. (054)633-6415
- ▲ 제전장애인복지관은 15일까지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있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 (043)652-0900
- ▲ 부산 두송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 (051)265-9471
- ▲ 맑고향기롭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김상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41-4696-7
- ▲ 불교예크리에이션 협회는 17일 2급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 강화를 개강한다. 강좌는 교리, 맨스, 음악 등 6분야. (02)738-7860

친화, 환,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동에게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조계종

한국어학습 프로그램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동국대 언어연구원에서 ‘외국인 승려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계종에 소속된 외국인 스님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국대 언어연구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02)732-4923-4

태고종

12일 임시중앙총회 개최

태고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87회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한다.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운곡)는 2002년도 세일·세출 결산안과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인수 및 공동경영안, 각급 기관장 인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천태종

울산 정광사 34월 법회

울산 정광사(주지 도징)는 2일 지관당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3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새불교운동을 벌여 울산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광사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시스를 중심으로 불자들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 봉천동 명락사주지화산은 16일 오후 2시30분 4층 법당에서 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진각종

산하기관 감사 일정 확정

진각종은 2월 21일 제214회 원

의회를 열고 제37기 회당장학생으로 김희원(서울대 4년) 씨 등 총 50명을 선발하는 한편, 심인당 및 종립유치원 사무지도와 중앙종무기관 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사무지도는 12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13일 경주교구, 14일 포항교구, 17~20일 대구교구, 21일 대전교구, 25일 서울교구 순으로 진행된다.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사무감사는 26~28일 실시할 예정이다.

밀교 연구소모임 지원

진각종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불교 및 밀교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한다. 종단 외부 2팀과 종단 내부 2팀을 각각 선발하는 연구소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3월 28일까지 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로 접수해야 한다. 종단 외부 2팀에게는 각각 매월 30만원, 종단 내부 2팀에게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02)913-0133-4

총화종

중앙총회, 올 사업 확정

총화종은 2월 27일 남양주 총무원 회의실에서 중앙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5월 보살계 산림, 8월 백두산 성지순례, 10월 법계고시 등을 올 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원흥종

창종 23주년 기념법회

원흥종은 창종 23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구로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스님 등 종단 간부 및 중진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원종

12일 총회...예산안등 심의

분원종 중앙총회(의장 대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평창동 총무원에서 2003년 상반기 정기 중앙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2년도 결산안, 2003년도 예산안, 2003년 사업계획안을 다룬 예정이다.

김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김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김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인 기교보다는 년단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김산** (慈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의 지육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蘆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